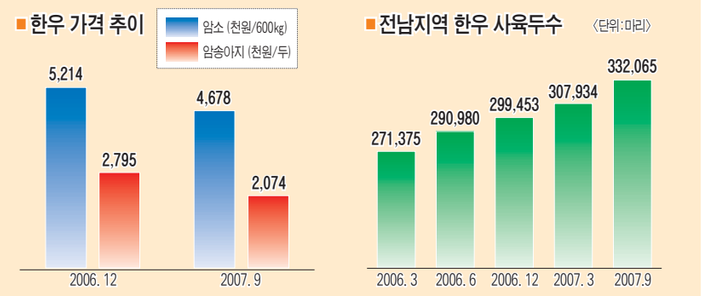

수입 쇠고기 판치고… 사료값 오르고 … 산지 소값 떨어지고…

"3중고 못살겠다" 한우농가 아우성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고,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광주·전남 3만5천600여 한우사육농가는 죽을 지경이다. 사료값은 급증한 반면 산지소값은 떨어지고 매물도 예전과 같지 않아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암송아지 26%↓ 암소 11%↓ 수송아지 10%↓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암·수 송아지와 암소(600kg), 수소(600kg)의 산지가격 평균은 각각 207만4천원, 202만6천원, 467만8천원, 488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암송아지의 경우 작년말의 279만5천원과 비교해 25.8%나 떨어졌고, 수송아지와 암소 역시 각각 226만2천원, 521만4천원대에서 지난 8개월여동안 11.5%, 10.3%씩 낮아졌다. 반면 중장기 축산전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소는 올해 오히려 7.3% 올랐다.

한우 값은 대체로 지난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다 지난달초 등뼈 검출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을 계기로 다소 회복, 8월20일 당시 암송아지와 암소·수소 가격이 각각 220만원, 470만원, 490만원대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같은달 24일 검역중단 조치 해제가 발표되자 다시 하락 반전, 1년 가운데 가장 큰 대목인 추석명절을 앞두고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말 29만9천453마리에서 올 6월 현재 33만2천65마리로 9.8% 증가했다.

암송아지값이 폭락한 것은 향후 송아지 생산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으로, 축산농가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의 반증이기도 하다.

◇농경硏 "소값 추석특수 기대도 어려워"= 농촌경제연구원은 '9월 축산관측' 보고서에서 9~11월 한우 암소와 수소, 수송아지 가격이 각각 460만~470만원, 465만~475만원, 195만~205만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가격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9~11월은 추석효과로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지만, 쇠고기 수입량과 한우 도축두수가 늘고 있어 계절적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입된 쇠고기는 모두 11만6천t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늘었다. 지난 5~7월 도축 후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도 10만6천마리로 작년 동기대비 14.5% 증가했다. 특히 암소의 경우 4만7천404마리로 29.4%나 크게 늘었다.

더구나 향후 미국과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협상결과에 따라 한우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미국산 소갈비 수입을 논의하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도 재개됐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 농가는 홍수출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명품 와인 선물세트 광주신세계는 13일 외출시 와인을 담아 갈 수 있는 캐리어 가죽 가방으로 구성된 명품 와인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가격은 에쿠스 까베르네 소비뇽&까르메네르(칠레산) 7만원, 메독 테레네브&메독 록 드 시스(프랑스산) 8만원, 피안 델레 비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01(이태리산) 15만원 등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호남지역 체불근로자 3,149명

추석 앞두고 1,924개 사업장서 97억 못받아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체불임금이 97억원에 달하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도 3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관내 사업체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천924곳의 사업체에서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불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모두 3천149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모두 97억원에 달했다.

체불임금 97억원 중 1천936명 근로자의 임금 55억원은 노동청 지도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주의 해결의지가 없는 사업체의 체불근로자 996명, 33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임금 근로자나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이달 21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반을 편성, 체불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노동부 공모 일자리 264개 확보

전남도 국비 26억 받아

전남도는 13일 "노동부의 '2007년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4개 사업, 264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전남지역 4개 단체에 인건비로 1년간 총 26억4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간병과 농촌환경개선을 주로 하는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나비뜰 생활지원사업'(94명, 가사·간병)과 가사·간병 사업인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돌봄 서비스사업'(70명) 등이다.

또 강진 다산문화진흥원의 '콩새미 아동건강지원사업'(50명, 식품제조), 목포 이주외국인상담센터의 '저소득계층 여성과 함께 밝은 미래로'(50명, 간병·외국어교육) 등의 사업이 함께 선정됐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최대 3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올해 기준액으로 3년간 최대 79억 2천만 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

'광주 DB시스템協' 혁신대회 대통령상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등 13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혁신자원 DB통합시스템협의회'(협의회장· 남헌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가 '2007 지역혁신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전략산업종합정보망 구축'으로 전국 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략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활용으로 첨단산단내 13개 유관기관의 기술혁신 활동을 증진시키고, 공동이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큰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은행 정태석 행장 전남대서 명예박사

전남대학교는 13일 금융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태석(52) 광주은행장에게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 향상으로 국내 금융 발전에 기여했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영대 교수들로부터 명예학위 추천을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14일 오전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리며 정 행장은 식후에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자유주의와 금융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공정위 주의보 발령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나 상품권, 온라인 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위가 1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2005년 3천483건에서 작년 3천723건으로 늘었고 상품권도 2005년 723건에서 작년 983건으로 증가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배송이 늦어져 물품이 변질되거나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배송 의뢰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물품 수령시 택배사 직원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물품상태를 확인한 뒤 수령증에 서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품권 피해사례로는 유령의 인터넷쇼핑몰 업자가 상품권을 염가로 판매한다고 선전한 뒤 대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상품권 사용후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할인매장이라며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사례 등이 꼽혔다.

온라인 직거래 피해도 인터넷에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선전한 뒤 대금만 챙겨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스팸메일에 주의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숙지한 뒤 대처해야 하며 온라인 직거래도 안전거래(에스크로)사이트를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